

# 84

## 알루미늄샷시제조업체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노무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 요

김○○(46세, 남)은 1990년 알루미늄 샷시를 제조하는 J사에 입사하여 운반 및 포장 작업을 하던 중 1996년 겨울부터 양쪽 어깨가 쭈시는 증세가 나타났고, 1999년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 2 작업환경

J사는 외부에서 제작된 알루미늄 봉을 가열하여 압출과정으로 알루미늄 샷시를 제조하는 사업장이다. 김○○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포장반에서 최종 생 phẩm인 알루미늄 샷시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간혹 피막작업을 하였다. 피막작업은 전기분해 방식으로 알루미늄 샷시에 피막을 입힌 후 수세하는 작업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피막재로는 황산니켈이나 황산제일주석을 사용하였다.

### 3 의학적 소견

김○○는 1996년 겨울부터 양쪽 어깨가 쭈신 증상을 느꼈고 1997년 10월에는 양견갑부 건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1998년 2월에는 오십견(의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행장애가 나타나고 혼자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1998년 12월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심의 당시에는 양 팔을 거의 사용할 수 없



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건강진단 기록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났다.

#### 4 결 론

이○○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 ① 알루미늄 샷시 제조업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업장이 알루미늄 용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압출만을 하므로 알루미늄 흠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 ② 피막 반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근위축성측삭경화증에 영향을 줄만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